

기우설비(騎牛說碑) 제막식 거행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 권형체 추밀공파 대종회 고문, 권영환 전 문충공종중 회장, 권영준 문충공종중 원로, 권오섭 문충공종중 총무, 권경일 추밀공파 사무처장, 권공범 매현공종중 부회장, 권환안 안동권씨 총보 편집국장 등은 지난 17일 14시 관동 8경 중의 하나인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정에서 거행된 기우자의 길 기념 동판 및 기우설비(騎牛說碑) 제막식에 참석했다.

기우자의 길 기념 동판 및 기우설비(騎牛說碑) 제막식은 전한걸 울진군수, 이오희 여주이씨종회장, 김성준 울진문화원장, 이운성 문절공기우자선생모사사업회장, 장시원 울진군의회의장, 황진열 평해황씨대종회장, 김학원 순천김씨총의공파고문, 성기훈 창녕성씨상곡공파회장 등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가운데 울진문화원 신상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성준 울진문화원장은 인사말에서 뜻깊은 행사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 기우자(騎牛子) 이행(李行, 1352-1432) 선생은 여주이씨이

자 평해황씨 외손이다. 조선 건국 시에 고려에 끌려가 충절을 지키며 불사이군(不事二君)으로 벼슬을 거부하다 귀양살이 한 곳이 울진과 평해이다. 울진에서 소타고 소나무 숲을 오갔다. 양촌 권근(權近, 1352-1400) 선생은 기우자 이행이 소를 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소는 느리다. 더디게 가야 오묘한 것까지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소를 탄 것 같다고 했다. 또한 기우자에게는 물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행(行)이라는 이름처럼 전국을 돌아다녀 물맛을 본 것 같다. 제일 좋은 곳은 충청도 달전수이고 두 번째는 한강의 우중수이며, 그 다음은 속리산에서 흐르는 삼타수(三陀水)라고 했다. 한마디로 풍류를 알았던 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준 원장의 인사말처럼 기우자 이행의 월송정越松亭 시판을 보니 과연 풍류와 운치를 알았던 선비였다.

이운성 송모회장은 제막식 인사에서 기우자 이행선생은 고려 마지막 대제학이다. 이곳 평해는 관동 8경 중의 하나이고 전국 황씨 시조의 성지이기도 하다. 또한 이행선생의 출처(出處)의 고장이기도 하다. 이행선생의 어머니가 황씨로 1361년 이행선생이 10세 때 흉년으로 인해 피해 모자가 함께 개경에서 나라살飛良谷 마을로 내려와 정착한 후 이 고장 사람이 됐다. 소년기도 여기 평해에서 보냈다. 이행 선생은 평해에 귀양와서 마을 어귀에 피집을 짓고 밤에 소를 타고 돌아다녔다. 젊은 시절부터 절친한 벗인 당대의 문호 양촌 권근선생이 이행선생을 위해 소를 타는 즐거움과 고상한 뜻을 아로새긴 기우설을 국문으로 옮겨 비를 세우고 그 징표로 삼으니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월송

滄溟白月半浮松 창평백월반부송
넓은 바다 위로 밝은 달 소나무에 걸려있네.
叩角歸來興轉濃 고각귀래흥전농



권영환 대종회 편집국장, 권공범 매현공종중 부회장, 권영준 문충공종중 원로, 권형체 추밀공파대종회 고문, 권영환 전 문충공종중회장,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 권영걸 안숙공종중 회장, 권오섭 문충공종중 총무, 권경일 추밀공파 사무처장(왼쪽부터).



기우설비



기우자의 길 기념 동판

정과 함께 이 기우자의 길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오래도록 자랑스럽게 기꾸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라고 말했다. 전한걸 군수는 태풍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빨리 회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제는 자연경관이 돈이 되는 시대이다. 기우자를 스토리텔링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역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꼭 가족과 함께 울진을 방문해 주시길 바라라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권오돈 추밀공파회장



독비(讀碑)하는 권영준 문충공종중 원로

권오돈 추밀공파회장은 오늘 유서깊은 평해읍 월송정에서 문절공 기우자송모사사업회가 주최하고 울진문화원이 주관하는 기우자길 기념동판 및 기우설비제막식에 참가해 뜻 깊은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고 큰 보람을 느낀다. 저는 오늘 제막하는 기우설비에 기우설을 지은 문충공 양촌 권근선생의 19대손이 된다. 오늘 이곳에서 기우설비의 제막을 대하니 600여년 전 평생기지로 지내신 문절공 이행선생과 문충공 권근선생의 돈독했던 우정을 다시 보는 듯해 실로 감개무량하다. 향토문화 계발의 한 축으로 오늘과 같은 보람된 행사를 주최한 문절공 기우자선생모사사업회와 이운성 회장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향토문화정답에 진력하는 김성준 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숭고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오늘 이 숭고한 문화행사를 기적으로 앞으로 문절공 기우자송모사사업회와 울진군의 문화창달과 발전을 기원한다고 하며 인사말을 마쳤다. 권영준 문충공종중 원로는 구성진 소리와 가락으로 기우설비 원문을 독비(讀碑)해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고 월송정의 메아리는 기우설비의 제막과 함께 기우자 길이 비로소 새롭게 열리게 됨을 알렸다. 기우설비에 아로 새겨진 문충공 양촌 권근선생이 지은 기우설은 다음과 같다.

소를 타는 즐거움 / 양촌 권근
나는 일찍이 산수를 유람하면서 오직 마음에 얹매임이 없어야 참된 낙樂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내 친구 기우자騎牛子 이행李行은 평해平海에 집을 두고 살았다. 매양 달밤이면 술을 가지고 소를타며 산수간에서 놀았다. 평해는 명승지로 이름난 곳인데 그 유람의 즐거움을 이공은 옛사람도 알지 못한 모미까지 터득하고 있다. 무릇 주의를 기울여 만물을 볼 때 바쁘게 서두르면 소홀함이 있고 찬찬히 살피면 그 오묘한 것까지 다 얻을 수가 있다. 맑은 빠르고 소는 더딘 것이라 소를 타는 것은 곧 더디고자 함이다. 생각해보니 밤



관동 8경 중의 하나인 월송정(越松亭)

은 달이 하늘에 떠 있는데 산이 높고 물이 맑아 아래 위가 한 빛이라 내려다보고 쳐다보아도 끝 간 데가 없다. 뜬 구름에 만사를 견주고 맑은 바람에 소리높이 읊조리며 소가 가는데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술을 마시면 가슴 속에는 서두르지 않고도 저절로 그 낙이 있을 것이다. 이 어찌 사사오이 번거로움에 매인 자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옛사람인들 또한 이런 낙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소동파의 적벽赤壁놀이 거의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배를 타는 위험은 소 등의 안전함만 같지 않다. 술이 없고 안주가 없어 돌아가 아내와 상의하는 일은 스스로 술을 지니는 쉬운만 못하다. 계수나무의 노와 목란의 상앗대는 번거롭지 않은가. 배를 버리고 산으로 오르는 것은 수고롭지 않은가. 소를 타는 즐거움을 그 누가 알았으랴. 성인의 문화에 미칠 수가 있었다면 그것을 보고 깊이 찬탄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 기우설騎牛說은 내가 삼십 여년 전 소식적에 지었다. 1404년 태종4년 겨울 10월에 적다. 편집국장 권영환



평해(平海)는 황씨의 성지
황씨의 시조는 황력(黃洛)이다. 황력은 한나라 광무제 때 신라 동북 해안에 표류하여 평해에 정착하게 되었다. 아들은 셋을 두었다. 첫째는 갑고(甲古)인데 평해황씨의 시조가 되었다. 둘째는 을고(乙古)인데 장수(長水)황씨의 시조이다. 셋째는 병고(丙古)인데 청원(淸原)황씨의 시조이다. 평해는 황씨의 시발지이다.

인류사에는 정사와 야사와 가족사가 있습니다
가족사는 족보이고 한국은 족보의 첨단선진국입니다

추밀공파 양촌문충공계 창수공족보를 만듭니다

창수공은 양촌 문충공의 4남 안숙공의 손자로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감내에 산소가 계신 광흥창수 휘 역憶을 계파조로 하는 1만5천 자손입니다

이번 족보는 한글판한자병기 전산보로서 책자는 첨단출판체재로, 전산판은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열람되는 영상보로 병행제작됩니다

수단[수록단자]의 마감은 2020년 4월 30일이고 수단비[등록비]는 창수공종회에서 지원하여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족보발간사무실: 우:08756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95 천우빌딩 503호
2호선 봉천역 4번출구에서 150미터. 팩스겸용전화 070-4320-7776
e-mail 5081kwon@naver.com. 권병관 010-8869-2867. 종보사 02)723-4480

안동권씨 창수공종회장 권병돈

추밀공파 정헌공계 지신공, 동지공, 진위공, 현감공 추향제 봉행



추밀공파 정헌공계 지신공(知申公), 동지공(同知公), 진위공(鎭威公), 현감공(縣監公)의 추향제가 지난 27일 10시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관곡재사(寬谷齋舍)에서 50여명의 족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지신공 추향에는 초헌관 권해택(전 화산부원군종중 회장), 아헌관 권수택(동정위종중 회장), 종헌관 권태균, 집례 권정택(전 기로회장), 축관 권희철(전 안양종친회장)로 각각 분방했다.

지신공 권희(權禧, 1547-1624)는 임진왜란 시 선조가 의주로 파견할 때 종묘서령(宗廟署令)으로서 신주와 역대 옥책을 받들고 행재소가까지 간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명나라에 동지사로 갔다가 마테오 리치가 1602년에 만든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를 1603년(선조 36) 이광정과 함께 처음으로 조선에 가지고 왔다. 지신공은 대사간과 도승지 등을 역임했다. 동지공 권익중(權益中, 1571-1659)은 임진왜란 시 선무원종공신 3등에 녹훈됐다. 동지공 향사에는 초헌관은 권정택, 아헌관 권성욱, 종헌관은 권용택이 담당했다. 진위공 권대유(權大유, 1598-1640)는 포항현감으로서 병자호란 때 군사를 거느리고 남한산성 행재소로 근왕(勤王)해 진위령이 됐다. 진위공 제례에는 초헌관 권이혁, 아헌관 권영관, 종헌관 권이봉으로 각각 분방했다. 현감공 권덕연(權德衍, 1619-1694)은 현감과 좌랑을 지냈다. 편집국장 권영환



보물 제849호 곤여만국전도